

메리알 코리아 창립4년만에 국내 최대 백신 업체로 급부상



“낙은 사고방식은 거부한
락다. 창의와 혁신을 바
탕으로 메리알의 명성
을 이어간다”

이는 메리알 코리아(대표 이성희)의 회
사 운영 지침이자, 메리알 최대의 자산이
다.

양계산업에 있어 동물 의약품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핵심이다.

특히 백신 공급업체로 유명한 메리알코
리아는 불과 짧은 회사 연혁에도 불구하고, 양
계산업에 있어 동물약품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빠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지난 98년 6월 한국에 진출한 메리알 코
리아는 세계최대의 동물약품 생산업체인
메리알의 무한한 잠재력과 노하우를 바탕
으로 국내 양계산업에 빠르게 접목해 나
가고 있다.

기업의 외형가치보다는 실제가치를, 현

재가치보다는 미래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기업의 모토에 걸맞게 조직의 활성화를 부
추겨 나가고 있다.

다국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원 전원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메리알 코리아는 기업
경영에 있어 낯은 사고를 과감히 거부하고
직원 개개인에게 고유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대폭적으로 부여, 신 사고를 창출
해 나가고 있다.

자유에서 창의가 비롯된다는 기업의 신
념으로 자유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직원간
의 유대관계와 팀웍을 중요시하는 기업문
화로 소수정예화를 이끌고 있는 메리알 코
리아는 「시장의 극대화」「판매의 극대화」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이룩한 가치는 연구개발
에 재투자해 고객에게 제품으로 보답한다
는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메리알은 미국의 머크사와 프랑스의 롱프랑그룹이 동물용 의약품 사업과 양계유전학사업을 통합해 만든 합작회사로 세계 15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30여개의 자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세계 유수의 메이커이다.

지난 1985년 싱가포르에 아시아지역본부를 개설, 10여개의 아시아 국가에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메리알은 싱가포르에 동물백신 및 약품 연구개발 센터를 설치, 아시아에 소속된 자회사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축산업계 특수성과 특이성을 고려한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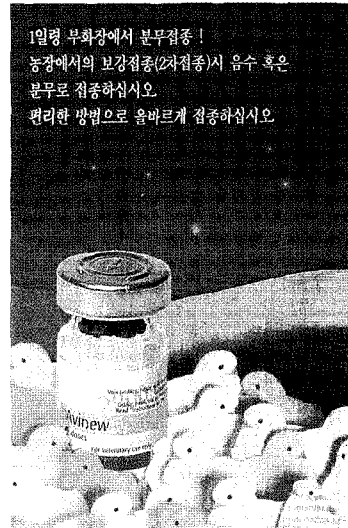
연간 2억달러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리알은 고객을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또한 메리알코리아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메리알 코리아 이성희 사장은 『우리는 고객의 사업특성 및 국내의 상황이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메리알의 전 세계적인 연구 개발력 및 기술적인 자원을 활용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과 고객은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상생의 관계로 설정,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알의 제품세계

메리알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여러 축종에 대한 예방용 백신과 치료용의약품이 망라돼 있다.

메리알의 탄생자체가 동물용의약품과 양



1일령 무화장에서 분무접종!
농장에서의 보강접종(2차접종)시 음수 혹은
분무로 접종하십시오.
편리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접종하십시오.

계유전학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왔던 머크사와 롱프랑그룹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로 동물약품산업 및 원종계에 대한 포괄적인 질병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자회사들이 널리 분포해 있어 고객의 생각에서 제조·판매·유통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메리알코리아의 대표적인 양계백신은 에비뉴를 들수 있다.

에비뉴는 지난 91년 2달여간 닭에 대한 안전성과 국내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시험을 거친 후 정식으로 국내에 등록된 제품으로 시험당시 음수 및 점안방법으로 안전성 및 효능을 인정받아 농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에비뉴의 대뇌병변지수는 B1(0.23)보다 높고, 라소타(0.40)보다 낮은 중간정도의 병원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에비뉴는 뉴캐슬병 생독백신 판매에서 지난 95년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C